

6/9/24

설교 제목: 회개하고 돌아오라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말라기 4 장 1-6 절

- (말 4: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 (말 4:2)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 (말 4:3)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절관주** 욘 40:12, 미 5:8
- (말 4:4)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 (말 4:5)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 (말 4:6)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절관주** 눅 1:17

본문은 말라기의 마지막 장인 동시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 그 날, 정하신 날 있을 심판을 말씀하시며, 당신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명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에 마음이 담기지 않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제사를 지냈습니다.

눈 멀고 절고 병든 것을 제물로 들고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분노케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고, 이로써 하나님과 맺은 평강과 생명의 언약이 깨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자 형제 간에 부부 간에 관계도 깨졌습니다.

그들은 형제에게 거짓과 가증스러운 짓을 행했으며, 이방 족속들과 혼인을 하였습니다.

어렸을 때 맞이한 아내를 버렸고, 아내를 폭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 책망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당신이 정한 날이 있으며, 그 날에는 모든 악인이 초개와 같이 불살라질 것이고 오직 당신을 경외한 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당신께 돌아오라고, 그러면 당신이 다시 받아 줄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오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불살라 버리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말 4: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용광로 불 같은 날'은 주님 재림의 날을 가리킨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5 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 곧 세레 요한을 보내시겠다고 하신 것으로 보아 예수 그리스도 초림의 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시대인 신약 시대가 어떻게 '용광로 불 같은 날'이 된다는 말입니까?

신약 시대는 은혜로 구원이 주어지는 시대로 복음을 받아 들이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 들이지 않는 교만한 자와 악한 자는 멸망을 당하므로 그들에게는 용광로 불 같은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 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말 4:2)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심으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 같이 기뻐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눅 1:76)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눅 1:77)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눅 1:78)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듣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눅 1:79)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рода 하니라

'치료'는 죄 문제의 해결을 말하며,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롬 3:21)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롬 3:22)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롬 3: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롬 3: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과 의롭다 함을 얻고 구원을 받은 자는 외양간에 갇혀 있다가 풀려난 송아지들이 기뻐 뛰는 것처럼 기뻐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구원의 기쁨을 노래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 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최후의 승리를 말합니다.

(말 4:3)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완전히 실행될 것입니다.

그 날,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실 것입니다.

(벧후 3:10)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계 21:8)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께서서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말 4:4) 너희는 내가 호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주며 의와 불의,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하십니다.

(말 4:5)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 4:6)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마 11:10)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마 11:12)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 11:13)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마 11:14)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한 이유는 그들 둘의 사역의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눅 1:8)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눅 1:9)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눅 1:10)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 (눅 1:11)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 (눅 1:12)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 (눅 1:13)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 (눅 1:14)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 (눅 1:15)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 (눅 1:16)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 (눅 1:17)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엘리야와 세레 요한의 사역은 타락한 백성을 회개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엘리야는 북 이스라엘이 아합 왕과 그의 처 이사벨로 인해 우상 숭배에 빠져 극도로 타락했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벨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자신이 섬기던 바알 신을 숭배하도록 강요했으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고 현세의 이익과 육욕에만 빠져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의 임무는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목적까지 까맣게 잊어버린 채 산 것입니다.

세레 요한 때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아니하는 극도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세레 요한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내는 것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하게 하고, 메시아가 오셨을 때 영접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당신도 마음을 돌이켜 받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당신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한 인간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후 400 년을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400 년 후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해 내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입니다.

성경에는 거대한 두 물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물줄기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물줄기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은총은 누리려 합니다.

반면 하나님은 그런 당신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인애와 긍휼을 베푸시고,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바로 세우려 하십니다.

이 거대한 두 물줄기가 서로 도도하게 흐르는 것 같지만, 결국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물줄기가 세속적인 인간의 물줄기를 덮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에게 정하신 날에 심판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십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불살라져 버려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시는 의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왜 당신의 백성들을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을 몰살시키기 원하셔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미숙한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가슴 아프게 하고 떠난 둘째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잊지 못하고 매일 동구 밖에 나가 기다리는, 그리고 가져간 모든 것을 탕진하고 마침내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발견하고 쫓아가 지난 일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돌아온 아들을 환영하며 다시 집으로 들이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몰살시키기 원하셨다면 그들을 향해 책망이나 경고 같은 쓴 소리를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거 없이 갑자기 심판하여 몰살시키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책망과 경고를 듣고 모두 회개하고 당신께로 돌아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성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당신을 배반하여 정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으로 기다리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계시지만, 실은 집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당신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우리가 회개하고 당신께로 다시 돌아오길 학수고대하십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의 방점은 무서운 심판에 있는 게 아니라 돌아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마냥 인내하고 기다려 주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깨닫고 하루 속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